

## I. 상담실적

- 상담기간: 2023. 7. 10.(월) 06:00 ~ 23:00
- 상담건수<sup>1)</sup>: 767건

## II. 주요의견 내용

### ○ 방송 호평

-프로그램명 : 「KBS UHD 명품관」 '바다의 제국-부의 빅뱅'

-방송일시 : 2023. 7. 9.(일) 1TV (20:10-21:00)

바다를 길로 본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바라보았던 서양의 역사를 다뤘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했다. 새로운 내용을 많이 알게 되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해 시청했다. 특히 설탕 산업으로 엄청난 부를 얻게 된 영국에 대한 내용이 흥미로웠다. 유익한 다큐멘터리 잘 시청했다.

### ○ 방송 제언(10명)

-프로그램명 : 「박원숙의 같이 삼시다」

-방송일시 : 2023. 7. 9.(일) 1TV (09:00-10:10)

주말 오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KBS를 시청한다. 그런데 부유한 여배우들이 놀러 다니는 모습에 공감이 되지 않고, 재미나 유익함 또한 느낄 수 없다.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이 좋지 않은데, 굳이 일본으로 여행을 가서 돈을 쓰는 모습도 보기 좋지 않다.

## III. 청원현황

- 신규청원
  - 3건.
-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
  - 없음.

※ 참고: KBS홈페이지->시청자권익센터->시청자청원(<http://petitions.kbs.co.kr>)

1) 프로그램 별 인터넷 의견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

#### IV. 일일 상담내용

##### 1. 상담실적 : 총 767건

###### ○ 형태별 분류

전화	인터넷	우편·FAX	방문	ARS <sup>2)</sup>	계
368	132	-	-	267	767

###### ○ 채널별 분류

1TV	2TV	라디오	DMB	인터넷	非채널	계
337	205	16	-	-	209	767

###### ○ 내용별 분류

의견제시	단순문의	기타	계
166	601	-	767

###### ○ 분야별 분류

방송	기술	경영	기타	계
506	1	75	185	767

시청자 의견	문 의
<p><b>【편 성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퍼즐 특급열차」</li> <li>- 후속 방송 요청</li> </ul> <p><b>【시사·교양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KBS UHD 명품관」</li> <li>- 방송 호평</li> </ul> <p><b>【연예·오락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박원숙의 같이 삼시다」</li> <li>- 방송 제안</li> <li>○ 「전국노래자랑」</li> <li>- 진행자 섭외 제안</li> <li>○ 「걸어서 환장 속으로」</li> <li>- 출연자 호평</li> </ul> <p><b>【드라마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말드라마 「진짜가 나타났다」</li> <li>- 극본 제안</li> </ul> <p><b>【라디오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정관용의 시사본부」</li> <li>- 방송 제안</li> </ul>	<p><b>【방 송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6시 내고향」</li> <li>- 「성계알」 연락처 문의 19건</li> <li>○ 「사사건건」</li> <li>- 「출연자 불만」 16건</li> <li>○ 「불후의 명곡」</li> <li>- 「방청」 문의 16건</li> <li>○ 「열린음악회」</li> <li>- 「방청」 문의 14건</li> <li>○ 「전국노래자랑」</li> <li>- 「방송 정보」 문의 11건</li> </ul> <p><b>【기 술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난시청」 문의 1건</li> </ul> <p><b>【경 영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프로그램 구입」 문의 34건</li> <li>○ 「홈페이지」 문의 23건</li> <li>○ 「전화교환」 문의 13건</li> <li>○ 「주차」 문의 3건</li> <li>○ 「수신료」 문의 1건 외 1건</li> </ul> <p><b>【기 타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한전 문의사항 포함 185건</li> </ul>

2) ARS 항목 상세내용: 제보, 홈페이지문의, 프로그램 구매문의,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

## 2. 프로그램별 의견

의견	세부내용
[ 편 성 ]	
후속 방송 요청	<p>○ 「퍼즐 특급열차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993. 10. 18.~1998. 6. 7. (월) 2TV 방송.</li> <li>- 시청자들과 함께 다양한 영상퀴즈를 푸는 프로그램이었다. 방영 당시 굉장히 재미있게 시청했던 기억이 있다. 기존 코너들을 그대로 유지하고, 당시 진행자였던 박미선 씨가 다시 진행을 맡아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면 좋겠다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h**</p>
[ 시사·교양 ]	
방송 호평	<p>○ 「KBS UHD 명품관」 ‘바다의 제국-부의 빅뱅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23. 7. 9.(일) 1TV (20:10-21:00)</li> <li>- 바다를 길로 본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바라보았던 서양의 역사를 다뤘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했다. 새로운 내용을 많이 알게 되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해 시청했다. 특히 설탕 산업으로 엄청난 부를 얻게 된 영국에 대한 내용이 흥미로웠다. 유익한 다큐멘터리 잘 시청했다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
[ 연예·오락 ]	
방송 제언	<p>○ 「박원숙의 같이 삼시다」 (10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23. 7. 9.(일) 1TV (09:00-10:10)</li> <li>- 주말 오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KBS를 시청한다. 그런데 부유한 여배우들이 놀러 다니는 모습에 공감이 되지 않고, 재미나 유익함 또한 느낄 수 없다.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이 좋지 않은데, 굳이 일본으로 여행을 가서 돈을 쓰는 모습도 보기 좋지 않다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



의견	세부내용
[ 라디오 ]	
방송 제언	<p>○ 「정관용의 시사본부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R (토-일) (12:10-13:58)</li> <li>- 전문가들이 출연해 한주간의 시사와 정보를 다각도로 분석해 준다. 주말에 청취하는데, 출연자들이 전반적으로 야당 입장에서 발언하기 때문에 다소 편파적이었다. 공정한 방송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